

#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하는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가 IT강국이란 명성을 얻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년 국내 인터넷 인구는 5년 만에 20배로 늘어났고 10년만인 지난해에는 무려 320배가 넘는 2,600만명이 됐다. 최근에는 3,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3,300여 만명을 훌쩍 넘었다. 전 국민적인 정보화열풍에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차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첫 상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술국가로 올라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이 IT강국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IT흐름이 변화될 것이고 세계의 IT 산업과 기술순위도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창간 11주년을 맞이해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면면과 업적들을 되돌아보고 현주소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도 진단했다.

편집자주



# 역대 정통부 장관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

## 체신부 시절부터 총 48명 ... 1년간 5명 교체되기도

글 / 권경희 기자

정보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정부부처 중 정통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해방 후 자유당과 공화당 시절에는 체신부의 위상은 그리 높지 못했다. 정부부처 내에서 힘있는 부처가 아니었기에 군 출신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지역, 북한지역 출신 인사 중에서 정권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 격동기를 대변해 당시 장관들은 단명하는 경우도 많았다. 4.19혁명 직후에 취임한 오정수(9대) 장관은 60년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꼭 1개월만에 물러났고, 뒤 이은 10대 최용덕 장관도 2개월21일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11대 이상철 장관(정통부 8대 장관과 이름이 같다)은 60년 8월23일부터 9월11일까지 불과 20일만에 물러나 체신부·정통부 통틀어 역대 최단명 장관이 됐다.

뒤이은 12대 조한백 장관도 4개월16일만에 물러났으며 13대 한통숙 장관도 5.16 쿠데타로 인해 3개월21일만인 61년 5월19일 자리를 내놓았다. 60년 5월2일(9대 장관 취임일) 부터 61년 5월19일(13대 장관 퇴임일)까지 불과 1년 동안에 5명의 장관이 바뀌었다.

### 평균 임기 1년2개월

체신부와 정통부를 포함한 역대 48명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2개월16일이다. 최단명 장관은 불과 20일의 오정수(9대) 장관이며 최장수 장관은 26대 박원근 장관으로, 3년3개월(75년12월19일~78년12월21일)을 재임했다.

박 장관은 육사 2기로 중장으로 예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있다 체신부 장관이 됐다. 반공연맹 이사장과 임경업 장군 승모회 이사장역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시절 장관 7명의 평균 임기는 1년20일로 역대 평균임기보다도 짧다. 초대 정통부 장관인 경상현 장관이 1년을 못채운 11개월27일만에 물러났고, 2대인 이석채 장관은 재경원 차관에서 정통부 장관으로 왔다가 7개월18일만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초의 기업인 출신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탱크주' 배순훈 장관도 당시 삼성차와 대우전자간의 빅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빌미가 돼 8개월18일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역대 장관중 공식 자료 파악이 가능한 19대 박경원 장관 이후

총 30명의 장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황종률(20대) ▲이재설(27대) ▲김기철(30대) ▲최광수(31대) ▲오명(36대) ▲이우재(38대) ▲경상현(정통부 1대) ▲배순훈(정통부 4대) ▲이상철(정통부 8대) 등이 그들이다.

그 다음으로, 전남 출신이 ▲박경원(영광·19대) ▲김보현(광양·22대) ▲문형태(화순·24대) ▲이대순(고흥·35대) ▲최영철(목포·37대) ▲송언중(고흥·39대) 등 6명이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출신은 5명으로 ▲박원근(인천·26대) ▲김성진(인천·33대) ▲이자현(평택·34대) ▲남궁석(용인·정통부 5대) ▲안병엽(화성·정통부 6대)등이다.

이어 경북 출신이 3명으로 ▲배상욱(28대) ▲최순달(대구·32대) ▲이석채(성주·정통부 2대) 등이며 경남 출신은 ▲윤동운(부산·40대) ▲양승택(부산·정통부 7대) 등 2명이다.

이밖에 전북 출신이 ▲강봉균(군산·정통부 3대) 1명, 충북 ▲김태동(괴산·21대), 충남 ▲신상철(공주·23대), 강원 ▲장승태(영월·25대), 평북 ▲윤홍정(초산·29대) 등이 각각 1명씩이다.

### 눈에 띄는 장관들

이재설 장관(27대)은 체신부 예산을 100% 증액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전화시설이 통신의 주력이었던 당시에 이 장관의 예산 배증으로 국내 전화 시설은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든다.

31대 최광수 장관은 TDX(국산전전자교환기) 개발의 시작으로 통신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전임 김기철 장관이 TDX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 장관 때 본격 착수한 것.

최 장관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씨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김재익씨는 최 장관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2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전자 교환기 개발에 본격 나서게 했다. 최 장관 때는 오늘날 KT의 전신인 한국통신공사 설립을 실무적으로 완성했으며 데이콤을 만든 것도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후 데이콤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시장에 잇따라 참여해 국내 유선전화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불러온다.

후임인 최순달 장관(32대)은 오늘날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신인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로, 산하 연구기관

출신으로서는 첫 장관이 된다. 이후 ETRI 원장 출신으로 정통부 장관에 오른 사람은 초대 정통부 장관인 경상현씨와 전 양승택 장관 등이 있다. 최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구공고 선배로 TDX 교환기 개발을 적극 지원, 사실상 결실을 맺게 했다. 현 KTF 사장인 남중수사장을 발탁한 사람도 최 장관이었다.

33대 김성진 장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다. 김 장관 때는 전산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 점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85년 장관에서 물러난 후 85년 과기처 장관, 86년 과학재단 이사장을 거쳐 87년 전산원 설립과 함께 초대 전산원장에 취임한다.

후임인 이대순 장관(35대)은 전남 고흥 출신. 문교부에서 체신부 장관으로 온 인물로 지역 안배 차원이었다는 것이 정통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는 '벽오동 심은 뜻은', '벽오동을 가꾸며'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했다.

36대 장관인 오명 씨는 국내 정보통신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최광수, 최순달, 김성진, 이자현, 이대순 등 무려 5인의 장관이 이어지는 동안 차관을 지낸 최광수 차관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통신산업의 굵직한 축적이 될 전자 교환기를 개발해 내는데 일등 공신이었다는 평을 듣는다.

88년 말까지 장관을 지낸 오명 씨는 그 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화려한 관직을 거쳐 96년 데이콤 이사장으로 업계에, 96년~2001년까지 동아일보 사장으로 언론계에 몸담는 등 다양한 이력을 보인다.

오 장관의 후임인 최영철 장관(37대)은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을 거친 기자 출신으로 국회에 진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인물. 그는 목포에 출마해 낙선하고 장관을 거친 후 다시 도전해 당선되기도 했다. 현재는 서경대 석좌교수로 재임중이다.

38대 이우재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후배로 육군 통신감과 국보위(國保委) 멤버이기도 했다. 특히 85년부터 89년까지 무려 5년간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사장을 지냈다.

이 장관은 재임 시절 한미통신협상을 주도했으며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국제전화시장의 경쟁구도의 원칙을 수립했다. 제2 이동통신사 선정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39대 송언중 장관 때는 유명한 '제2 이동 반납'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던 신경(현 SK텔레콤)이 제2 이동사업권을 받았으나 여론에 밀려 결국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것.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반납한 첫 사례다.

송 장관은 당시 노 대통령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건의했다가 노 대통령으로부터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부 정통관료 출신으로 형사와 사시를 모두 패스하기도 한 송 장관은 전형적인 선비형으로 논리를 중시해 당시 체신부 공무원들은 그를 '송조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또 언론에서는 언행이 세심한 그를 빗대어 '송주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40대 윤동운 장관은 박관용 청와대 수석과 절친한 사이다. 그는 특히 체신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차관과 장관을 지낸 유일한 사람이다.

체신부나 정통부에서 차관을 지내다 장관이 된 사람으로는 25대 장승태 장관과 오명 장관, 초대 정통부 장관인 경상현 장관, 안병엽 6대 정통부 장관 등이 있다. 윤 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발동을 건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성진 장관시절 전산원을 만들며 시작된 국내 정보화 사업을 발흥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5대 기간전산망 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 때다.

윤 장관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났으며 통신업계에는 영향력이 커 지금도 '대부'로 불린다. 윤 장관 때는 특히 제2 이동사업자에 CDMA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한국이 'CDMA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KMT)이 민간(선경)에 넘겨지고, 신세기통신(SK텔레콤에 합병됨)을 허가한 것도 이 때다.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 후 첫 장관인 경상현 장관은 MIT 박사 출신으로 기술자 출신 장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전자통신연구소(현 ETRI) 소장을 8년 하면서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오명 장관이 TDX라면, 경상현 장관은 CDMA라고 비교한다.

경 장관 때는 PCS사업자 선정방식을 CDMA 단일 표준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 때문에 당시 미국 에어터치 고문으로 있던 칼라힐스가 한승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 항의하고 돌아갔을 때 "기술개발에 자신있다"고 청와대에 보고, CDMA 방식을 밀어 부쳤다.

2대 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석채 장관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통이었으나 재경원 차관을 거쳐 정통부 장관이 됐다. 말과 글이 뛰어나 당대의 논객으로도 불린 그는 선이 굵고 추진력이 강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정통부 장관시절의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혐의에 연루돼 오랜 해외도피 끝에 지금도 재판이 계류중인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으로 있다 장관에 취임한 강봉균 장관(정통부 3대)은 행정통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정통부의 위상을

크게 올려놓은 인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책기획 수석, 경제수석 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치는 등 화려한 공직 경력을 자랑한다. 2000년 총선 때 분당에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2002년 군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후임인 배순훈 장관은 '뱅크주의'로 유명한 첫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배장관은 공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기대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그는 98년 김대중 정부가 강력 추진하던 빅딜 정책과 관련, 삼성차와 대우전자간 빅딜의 불합리성을 주장한 말이 화근이 돼 단명했다. 연이어 민간기업(삼성 SDS 사장)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한 남궁석 장관은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버코리아21'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주요 정책을 수립했지만 삼성 출신으로 삼성에 유리한 정책을 펼쳤다

는 구설수에 오른 것이 흠이다. 당시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PC' 사업을 삼성이 반대해 무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석 장관은 그러나 곧바로 국회로 진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등 정치가로서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다.

정통부 6대 장관인 안병엽 장관은 경제기획원에서 1급으로 정통부로 발탁돼 차관과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안 장관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2GHz 대역의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 방식을 놓고 과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TRI 원장과 초대 ICU 총장 출신인 7대 양승택 장관은 과학자 풍 장관으로 꼽힌다. IT기술에 밝은 그는 기술정책과 관련 소신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직설적인 말 때문에 '설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이름	재임기간	출신지	학벌	이름	재임기간	출신지	학벌
체신부				25	장승태 1974년 9월17일~1975년 12월18일	강원 영월	국민대
1	윤석구 1948년 8월4일~1949년 6월13일			26	박원근 1975년 12월18일~1978년 12월21일	인천	일본대 육사
2	장기영 1949년 6월13일~1952년 1월11일			27	이재실 1978년 12월21일~1979년 12월13일	서울	서울대
3	이순용 1952년 1월11일~1952년 3월20일			28	배상욱 1979년 12월13일~1980년 5월21일	경북	대구대
4	조주영 1952년 3월20일~1952년 10월8일			29	윤홍정 1980년 5월21일~1980년 9월1일	평북 초산	육사(87)
5	강인택 1952년 10월8일~1954년 6월29일			30	김기철 1980년 9월1일~1981년 3월8일	서울	만주 길림사범
6	이 광 1954년 6월29일~1955년 9월15일			31	최광수 1981년 3월10일~1982년 5월20일	서울	서울대 법대
7	이응준 1955년 9월15일~1958년 9월 8일			32	최순달 1982년 5월20일~1983년 10월14일	대구	서울대 전기공학
8	곽의영 1958년 9월8일~1960년 5월1일			33	김상진 1983년 10월14일~1985년 2월18일	인천	육사
9	오정수 1960년 5월1일~1960년 6월1일			34	이자현 1985년 2월18일~1986년 8월26일	경기 평택	서울대 정치학
10	최용덕 1960년 6월1일~1960년 8월22일			35	이대순 1986년 8월26일~1987년 7월13일	전남 고흥	서울대 법대
11	이상철 1960년 8월22일~1960년 9월11일			36	오 명 1987년 7월13일~1988년 12월4일	서울	육사
12	조한백 1960년 9월14일~1961년 1월29일			37	최영철 1988년 12월4일~1989년 7월18일	전남 목포	서울대 정치학
13	한통숙 1961년 1월29일~1961년 5월19일			38	이우재 1989년 7월18일~1990년 12월26일	서울	육사
14	배덕진 1961년 5월19일~1963년 1월31일			39	송언중 1990년 12월26일~1993년 3월25일	전남 고흥	서울대 법대
15	김장훈 1963년 1월31일~1963년 12월15일			40	윤동운 1993년 3월25일~1994년 12월23일	부산	서울대 법대
16	홍헌표 1963년 12월17일~1964년 7월20일			정보통신부			
17	김홍식 1964년 7월22일~1965년 5월15일			1	경상현 1994년 12월23일~1995년 12월20일	서울	서울대 공대
18	김병삼 1965년 5월15일~1966년 12월26일			2	이석재 1995년 12월20일~1996년 8월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상대
19	박경원 1966년 12월26일~1967년 10월2일	전남 영광	단국대	3	강봉균 1996년 8월7일~1998년 3월2일	전북 군산	서울대 상대
20	황중율 1967년 10월2일~1968년 5월20일	서울	일본 구주 제국대	4	배순훈 1998년 3월2일~981220	서울	서울대 기계과
21	김태동 1968년 5월20일~1969년 10월20일	충북 괴산	명치대	5	남궁석 1998년 12월20일~2000년 2월11일	경기 용인	고려대 경영학
22	김보현 1969년 10월20일~1970년 12월20일	전남 광양	서울대 법대	6	안병엽 2000년 2월14일~2001년 3월25일	경기 화성	고려대 정외과
23	신상철 1970년 12월20일~1973년 12월2일	충남 공주	일본 육군항공사관학교	7	양승택 2001년 3월26일~2002년 7월11일	부산	서울대 공대
24	문형태 1973년 12월2일~1974년 9월17일	전남 화순	육사	8	이상철 2002년 7월11일~2003년 2월27일	서울	서울대 법대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의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은 관료시절 가장 비정치적 인물로 통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직선적 성격은 적당한 타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 16, 17대 총선에서 전북 군산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 정치인으로 변신한 강 의원은 경제성장 기반 만들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회관서 정국구상에 여념이 없는 강 의원을 만나 국내 IT산업의 현안을 들어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 강봉균 (3대 정보통신부 장관)

재임기간 : 1996년 8월 8일~1998년 3월 2일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제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대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가 정통부 장관에 취임했던 때는 정통부가 체신부에서 확대 개편된 이후 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당시 정보화와 IT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내에서의 위상도 현저히 강화됐고, 민간의 기대와 요구수준도 높았으며,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도 전례 없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3대 정통부 장관인 강봉균 의원은 1년 6개월 17일의 재임기간으로 역대 최장수 정통부 장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만큼 강 의원의 정통부 장관 재임시절이 국내 IT산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정통부 장관으로 있던 당시 통신인프라의 고도화가 본격 추진됐고, 통신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은 물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전신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립됐던 것도 강 의원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일이다.

오랫동안 국가 경제를 주무른 경제통답게 강 의원은 IT현안에 대해 뚜렷한 시각을 견지했다. 우선 “동북아 중심 경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짜여져야 한다는 얘기다.

### 기업투자 머뭇거리게 하는 환경 제거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죠.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지연시키고 머뭇거리게 하는 환경을 제거해주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IT산업이 그 자체로서 전략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부문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IT산업의 투자활성화는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창출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 이를 위해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과 함께 애로요인의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강렬해지는 노조운동도 재고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문제도 경쟁체제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국가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높은 임금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자간 불공정한 구매관행이 현존하고 있어 이는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IT M&A 펀드 결성 등 자율적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IT 전문 콜센터 및 공동구매 등 공동협력 기반을 조성하려 했으나, IT경기 부진 및 내수침체 등으로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갖는 공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동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강 의원은 관련협회에 기업간 공동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동구매 품목 확대 및 공동개발 마케팅 등을 추진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창출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정부 및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을 머뭇거리게 하는 환경을 제거해주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예보제를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IT제품 수요예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가기’ 보다 ‘선도전략’으로 나가라

현 정통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리고 산업계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8대 신규서비스의 도입 활성화, 3대 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유발, 그리고 9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이어지는 ‘IT 839’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칭찬.

물론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는 정책이슈들을 좀더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지식산업 육성이란 국가차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통신시장 해결 등 민감한 정책사항은 좀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당부다.

“제가 정통부 장관에 재직했을 때나 지금 진대제 장관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유사한 상황이 많아요. 전반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IT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죠.”

강 의원은 세계 IT시장이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뚜렷한 회복세에 힘입어 2003년 3% 수준에서 4% 내외로 성장이 기대되고, 카메라폰, 디지털TV 등 컨버전스 제품이 세계 IT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일부 품목의 경쟁력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부품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T산업의 전부문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T기술의 융·복합화 등 세계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따라가기’ 보다는 ‘선도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 “탱크주의 기술이 디지털 시장 선점 관건”

민간기업 전문경영인에서 바로 경제부처 장관에 임명된 첫 주자인 배순훈 4대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에게 ‘탱크박사’로 각인된 인물로 유명하다. 대우전자 시절 ‘탱크주의’ 광고에서 각인된 깨끗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엔지니어 출신으로 대기업 회장직에 올랐던 전력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순훈 전 장관은 요즘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동북아 시장 발전을 위해 세계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배 전 장관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나봤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 배순훈 (4대 정보통신부 장관)

재임기간 : 1998년 3월 3일~1998년 12월 20일

서울대 기계공학과, 미국 MIT대학원 기계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대우전자 사장, 미국 스탠포드대 및 MIT대 객원교수, 대우기전공업 대표이사 사장, 대우조선자동차부문 사장, 대우전자 사장, 대우전자 대표이사 회장, 정보통신부 장관, 현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현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

배순훈 전 장관은 지난 90년대 초반 대우전자 사장시절 ‘고장 안 나는 제품’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탱크주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때 TV광고에 직접 출연, 탱크박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현장을 떠난 연구는 소용없다는 ‘현장주의’와 튼튼하고 안전한 ‘기본 기능에 충실하자’는 철학을 가진 공학박사다. 때문에 매사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과학적 사고와 소신으로써 접근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해 공공부문에 대한 시각도 넓고 관련 기업 및 산업계 실정에도 밝은 편이다. 정통부 장관시절이던 지난 98년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상용화를 지원,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분야의 테크노 최고경영자(CEO) 인맥을 대표하는 배 전 장관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경영학(기업지배구조)을 가르치고 있다.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배 전 장관은 과거 TV광고에서 본 젊고 활기찬

모습은 세월에 씻겨서인지 거의 사라졌지만 온화한 성품의 이미지는 그대로 묻어났다. 이러한 배 전 장관에게 정통부 장관 시절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달라고 부탁했다.

### 우정사업 115년 만에 흑자 전환 가장 기억

“정부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입각설은 계속 있었는데, 정통부를 맡게 될 줄은 임명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한국통신 사장 공모에 응모하라는 제의를 받고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심 통신산업에 기여하고픈 생각은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정통부 장관이 되어 속을 들여다보니 통신분야에 비해 우정(郵政)분야가 너무나 낙후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곳부터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의 시범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로 우정사업 종사자들에게 기업경영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우선 전국을 돌며 우정분야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경영마인드의 ‘ABC’를 강연했다. 강연회수가 120회쯤 된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대우전자를 경영할 때 자주 활용했던 방법이다. 장관이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니 일단 분위기가 확 달라져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그는 우정사업에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도입, 담당 공무원의 국외 파견이나 훈련 등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우편요금을 재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우편물의 수집과 배달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경영성과가 좋은 우체국 직원들에겐 상여금도 차등 지급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우정사업은 115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98년 12월말 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주요시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통부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과 우정사업 구조조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 김대중 정권 최대 업적 ‘정보화’

김대중 정권의 최대 업적에 대해서는 ‘정보화’라고 평했다.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세계 22위였던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김 대통령의



“단순하고 상식적인 ‘탱크주의’ 기술 선점이 앞으로 디지털 시장 선점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의지와 후임 장관들의 열정으로 한국이 IT강국으로 우뚝 올라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고속도로 위에서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배 전 장관은 후임 정통부 장관들이 시의 적절하게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의 1위는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2위에서 1위를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1위를 유지하기는 쉽잖아요. 1위는 정책에 있어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계속 1위를 고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시의 적절하게 펼쳐져 IT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가치관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작은 정부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도 작은 정부를 말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한 과제입니다.”

배 전 장관은 정통부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정책에 있어 각종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관여이고 간섭이지요. 민간기업 스스로 정해서 도움을 요구할 때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 정통부 장관은 IT전문가 말아야

배 전 장관은 앞으로도 정통부 장관은 IT전문가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치인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IT에 대한 안목이 높은 분들도 많지만 일반 지식이 없는 분이 장관을 맡을 경우 IT강국으로 나아가는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해 전망을 부탁했더니 배 전 장관은 한 마디로 “탱크주의”를 외쳤다. “최근 SBS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교수도 미래 디지털산업은 단순하고 상식적인 디지털로 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분이 ‘그건 배 장관 말이잖아’ 하며 웃더라구요. 단순하고 상식적인 것이 바로 탱크주의 아닙니까. 앞으로 IT시장은 단순하고 고장이 잘 안 나는 ‘탱크주의’ 기술 선점이 시장 선점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지금은 자신감 갖고 미래 위해 투자할 때”

‘CDMA의 산증인’ 이자 ‘초고속인터넷 신화’의 주인공인 양승택 전 장관은 오는 9월 부산에서 개최될 ITU텔레콤아시아의 조직위원장직을 맡아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명정보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시절에 이어 두 번째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IT코리아의 면모를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던 양 전 장관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글 / 신종훈 기자



### 양승택 (7대 정보통신부 장관)

재임기간 : 2001년 3월 26일~2002년 7월 11일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미 버지니아폴리텍대 전기공학과 석사, 미 폴리텍대 전기공학과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TDX개발단장, 한국통신진흥 사장, 한국통신기술 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제7대 정보통신부 장관, 현 동명정보대학교 총장

“우리에게는 충분히 세계시장을 재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 동명정보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취임 당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은 1억 8,0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2년뒤 수출실적은 10억달러로 증가했다”며 “이를 위해 CMM 제도를 도입하고, SI 자체를 상품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부터 치유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전 장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업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던 얘기로 이는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할 일”이라며 “돈을 들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는 것과 달리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무엇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IT월드컵 성공 가장 기억에 남아

양 전 장관이 재임했던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약 1년 3개월간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 여전히 우리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는 2002 한일월드컵을 통해 우리의 기술력과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세계시장에 선보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양 장관 역시 재임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러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전 장관은 재임 당시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공무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일을 꼽았다. 양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5월 제5회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던 중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정보화추진위 간부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IT산업 및 전자정부 경험'에 대해 강연을 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장관에게 공무원들을 위한 강연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당시 강연에는 정보화추진위 간부 외에도 신식산업부 간부와 차이나유니콤 양시엔주 회장을 비롯, 중국 IT기업의 최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 전 장관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보화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제시, IT분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정보화촉진기금 조성과 투자 등을 꼽으면서 중국측에 정보화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 839 정책 지금부터 서둘러야

양 전 장관은 최근 무선인터넷 시장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음성에 기반한 기술을 데이터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보다 1/20 수준으로 요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무선인터넷 시장의 발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3G의 데이터 속도는 당시 ISDN의 전송속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보다 훨씬더 효율이 높은 IP 기반 데이터 서비스와 VoIP가 결합된다면 지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839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839 프로젝트는 서비스를 위한 정책"이라며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추진한다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 장관은 통신시장에 있어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시장에 비대칭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정답이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 중심의 비대칭 규제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며 "현재

의 비대칭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재빨리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적 사업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쏠림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1위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양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임 당시 건전한 경쟁대상을 만들기 위해 통신 3강 구도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업자간 견해 차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양 장관은 인터뷰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들기도 했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컬러링 서비스를 외국에서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시장성은 최근 국산 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휴대인터넷 사업도 결국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며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에게 가치 주는 살아있는 콘텐츠 개발해야”

이상철 제8대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02년 7월 정통부의 수장에 올라 2003년 2월까지 7개월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장관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IT펀드 결성, KT민영화 단행, 전자정부 출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7개월간 그가 보여준 행보는 역대 장관들의 공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공직에서 떠나 야인으로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살아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강조했다.

글 신중훈 기자 / 사진 박진명 기자



### 이상철 (8대 정보통신부 장관)

재임기간 : 2002년 7월 11일~2003년 2월 27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미 버지니아폴리텍대학교 석사, 미 듀크대학교 박사, 미 웨스턴유니언스페이스컴 선임연구원, 미 컴퓨터사이언스사 책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KT 통신망연구소장, KT 사업개발단장, KT 무선사업본부장, KTF 사장, KT 사장, 제8대 정보통신부 장관,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콘텐츠는 살아서 움직이는 콘텐츠가 돼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가 서로 엮어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콘텐츠는 살아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시내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만난 이상철 전 장관은 특유의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IT산업 이야말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이끌어줄 유일한 대안”이라며 “IT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발상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콘텐츠는 유무선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통합 등 변화될 환경을 고려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철 전 장관은 지난해 2003 전자상거래 대상에서 소기업 네트워크화에 기여한 비즈메카 서비스를 사업화해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듀크대 한국 총동창회에서 선정한 ‘자랑스런 듀크인’에 뽑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일문 일답.**

▶ KT 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강조하던 '3先 전략'이라는 경영 원칙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것인가?  
 - 3先 전략은 쉽게 말해 '먼저 보고(先見), 먼저 결심하고(先決), 먼저 행동한다(先行)'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가져야 할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한발 앞서 내다보고 전략을 결정해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면 IT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부터 투자해야 할 것은 서비스 인프라이다. IT산업은 크게 유저와 서비스, 네트워크, 통신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가운데 유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얼마나 새롭고 유익한 서비스가 어떤 수단을 통해 제공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 즉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졌으니 유저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재임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하나가 IT펀드의 조성이다. 무엇을 위한 펀드였나?

-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펀드였다. 당시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장을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IT산업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그 가능성에 비해 제작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 멀티플렉스 등



“콘텐츠는 살아서 움직이는 콘텐츠가 돼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콘텐츠가 서로 엮여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콘텐츠는 살아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국내 IT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 IT산업은 한정된 자원에서 수배, 또는 수십 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다. 특히 IT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그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국민소득 2만달러는 IT산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신서비스의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통신시장은 규제와 자율이 항상 공존해야 한다.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 때문에 경쟁을 규제해선 안된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유선망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경우 누구든지 KT의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에서 소외될 수 있는 도서 산간지역에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 앞으로 통신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인 네트워크가 오픈돼야 한다. 자사의 서비스만을 위해 네트워크를 독점해서는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 IT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IT는 이미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 들어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도 IT학이라는 체계적인 학문이 없다는 점에 대해 늘 아쉬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이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마찬가지로 IT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결코 작지 않지만 IT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이제는 IT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려대학교의 교수진을 비롯해 많은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머지 않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